



정교회주보

제2485호

2024.08.1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성 게오르기오스 호지바 수도원(사진)은 팔레스타인의 예리고에 위치한 수도원이다. 5세기경 절벽 바위 위에 전통적인 비잔틴 양식으로 세워졌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도원 내부 동굴 천장에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유형의 십자가 성화가 보존되어 있다.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 수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태오 제7주일
성 니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6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주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15,1~7(봉)	173
• 복음경 : 마태오 9,27~35	11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택함 받음과 버림 받음의 신비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게 주는 평화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멀리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그 광경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광경을 감싸고 있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세상의 죄에 당신 위격의 빛을 비출수록,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의식과 기억은 더욱 내게 무겁고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나는 용서를 간구할 때 용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죄인의 한없는 자격 없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악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믿음과 기적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도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하고 물으셨다.

여기서 물어보시는 ‘믿음’은 그분에 대해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 없이 그와 같은 관계가 100% 성립되어야 예수님과 완전한 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완전한 믿음의 관계는 오직 주님하고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은 “믿느냐?”하고 물으시는 것이다. 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강요하고 강조한다면 대부분 사이비 교주일 것이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100% 믿어야 한다. 그분을 완전히 믿고 뜻에 따라야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소경 두 사람이 “예, 믿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능력 이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그와 같은 초능력을 갖기를 열망한다.



그리하여 남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로, 미신과 신비와 조작과 위선으로 사람들

들을 유혹하고, 그들은 호기심과 욕심의 충족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쉽게 빠진다. 정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믿음 생활을 따분해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는 거부하고, 미신적이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신비적인 종교에 더 관심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욕심이 많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믿음의 성숙을 거부하고 당장 욕심을 채워주는 듯한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할 욕심을 쫓아 환상과 착각 속에 현실을 거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정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현존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크고 작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인 같은 분들과의 친교를 하며 영적 형제자매들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병어리 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어 그가 말을 하게 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영적 행복의 기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과 만날 약속 때문에...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어떤 은둔 수도사가 매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한 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간절히 간청하였다. 그리곤 마침내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곧, 천사가 찾아와 ‘너는 내일 산 정상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수도사는 일찍 일어나서 산을 바라다보았는데, 산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감싸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산꼭대기를 향해 출발하였다.

얼마쯤 갔을 때 그는 걷고 있던 길 가에서 한 남자가 가시덤불 속에 빠진 채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 미안합니다. 저는 좀 바쁩니다. 하느님과 약속이 있걸랑요.”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재촉하였다.

더 가다가 그는 한 여성이 아픈 아이를 안고 있는 울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수도사는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산 정상에서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걸음을 더 빨리해서 걸어갔는데, 길이 점점 더 험해지는데 가운데 지칠대로 지친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노인은 물병을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쳐서 더 이상은 못가겠소. 요 아래에 있는 샘에 가서 이 물병에 물 좀 하나 가득 채워다 주실수 있겠소?”

“노인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하느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있어요. 이딴 일로 꾸물대다가 늦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나서 수도사는 가던 길을 서둘러 마침내 산의 정상에 다다랐고, 하느님과 만나기로 했던 오두막으로 갔는데, 그 문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약속했던 대로 여기에 있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올라오던 길에 네가 도와주지 않은 이들을 돕기 위해 나는 간단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8월 15일(목)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영적 발전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15일(목)
성모 안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서울 성당 유아 세례 성사

지난 3일(토),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남아 세 명이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세례자: 김 솔로몬, 레프 조도현,
삼손 박선우

알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종료

지난 7월 29일-8월 1일 중교등부 기간을 거쳐 8월 1일-6일에는 초등부 기간의 수련회가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서 공부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성찬예배, 고백성사, 아침저녁 기도, 성모 소기원 의식 등의 전례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동물원, 박물관 방문, 실내 및 야외 게임, 계곡 물놀이, 사물놀이 강습 등으로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는 6일, 수도원 축일 예배 참례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소식

가평 수도원에서는 주님의 변모 축일을 맞이하여 5일(월)에는 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을, 6일(화)에는 조과, 아르토클라시아 의식, 성찬예배, 포도 축성식이 있었고, 고 소티리오스 대주교 축일을 맞아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사랑의 오찬 다음에는 수련회 참가자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과 신자들과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하느님께서 지켜보신다

어떤 사부가 말했다.

“누구든지 인간은 참으로 특이한 존재라고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은 현존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치 자신이 저지르는 불의를 지켜보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죄를 짓기 때문이다.”

